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1-12 showing program schedules.

신비주의 벗고 예능 MC로 나선 배우들

황신혜·김희선·최민수 등 예능인에게 보기 어려운 참신함 기대

배우들의 TV 토크쇼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일회성 게스트에서 벗어나 여전한 MC로 손님을 맞는 이들은 방송에서 신비주의를 벗고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제작진도 예능인에게 보기 어려운 참신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도전을 환영한다.

▷배우 집단 토크쇼까지 등장=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MBC '토요일 밤의 토크쇼'이다. 황신혜·심혜진 등 9명의 배우를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메인 MC조차 없다. 배우들의 이야기로 온전히 프로그램을 꾸려가겠다는 게 제작진의 각오다.

최윤정 PD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진 배우들이기 때문에 다른 토크쇼보다 훨씬 일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토크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희선은 다음 달 선보이는 SBS '강심장 2-마음을 지배하는 자' MC를 맡았다.

카리스마의 대명사 최민수도 종합편성채널 JTBC의 '행쇼'로 토크쇼 MC에 도전한다. 최민수는 고교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던 주철환 PD와 인연으로 '행쇼'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참신함, 배우는 이미지 변신 기대= 최근 이런 흐름은 제작진과 배우들의 요구가 맞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배우 MC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예능인과 다른 참신함이다.

'배우들'을 기획한 박현석 CP는 "배우들이 그동안 방송에서 노출되지 않은 인물들



MBC 토크쇼 '토요일 밤의 토크쇼'에서 공동 진행을 맡은 배우 신소율·황신혜·심혜진·송선미·고수희·예지원·민지와 가수 존박(왼쪽부터).

인 만큼 보여줄 것도 많고,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며 "예능인과 일반인 중심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다변화되는 현상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들에게는 고정된 이미지를 바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작품에서 단아하고 푹 부러지는 역할을 주로 했던 한혜진은 '힐링캠프' MC로 활약하며 친근하고 솔직한 이미지로 거듭났다. SBS '강심장'의 이동욱 역시 숨겨놓은 입담을 뽐내며 유머러스한 면모를 드러냈다. KBS 2TV '승승장구'의 김승우 역시 3년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진행력을 인정받았다.

▷연기에 독이 될 수도= 배우들의 토크쇼 도전에는 위험이 따른다.

토크쇼라는 장르 특성상 MC의 진행력이 중요해진 경험이 부족한 배우들이 자칫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BS '고소'는 탐베우 고현정을 앞세웠지만 한 자릿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고현정은 돌발 발언과 과도한 리액션으로 MC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시달렸다.

예능 프로그램 속 잦은 노출이 연기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학과 교수는 "삶을 연기로 표현해야 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토크쇼가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MC로서 이미지가 굳어질수록 연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6일 癸未). Includes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EBS 프로그램 안내. Columns: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Additional EBS program details and schedule inform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I am of the same opinion'.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 (寸鐵殺人).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歇后语 xiēhòuyǔ'. Includes Chinese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Korean characters (숨어 있는 말).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오하오유니혼고'. Includes Japanese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Korean characters (급할수록 돌아가라).